

#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최고... 64%↑ 157억弗

〈상반기〉

산업부, 상반기 역대최고 실적 EU서 106% 증가한 46억弗 기록 제조업72억弗·서비스업 74억弗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간 외국인투자액이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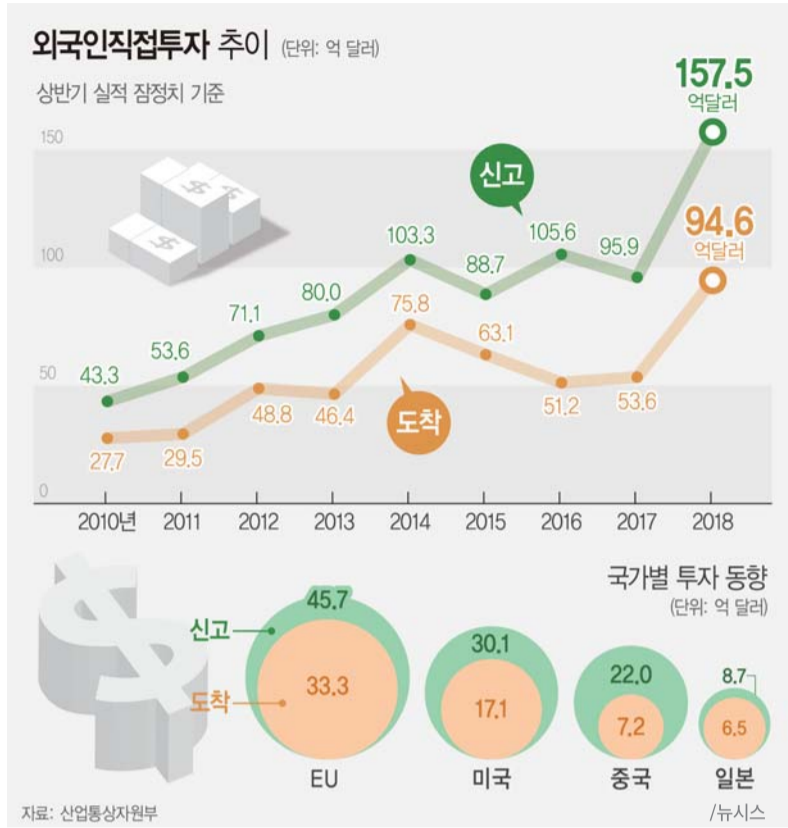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57억 5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64.2%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며 이미 작년 1~3분기 실적인 135억 9000만 달러를 추월한 액수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76.4% 증가한 94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우리나라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작년 대비 106.3% 증가한 45억7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96.0% 증가한 33억3000만 달러였다.

화학공업·자동차부품 투자가 계속되고 도·소매업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대형 인수합병(M&A) 등이 이뤄지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미국은 신고 기준으로 작년 대비 23.2% 증가한 30억1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163.0% 증가한 17억1000만 달러



였다.미국 투자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과 부동산 분야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신고 기준으로 360.0% 증가한 22억 달러, 도착 기준으로 558.8% 증가한 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발 FDI는 양국 간 경제교류 회복, 한국 고급 소비재에 대한 투자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투자가 8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으로 투자가 확장됐다.

일본은 신고 기준으로 6.5% 증가한 8억7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12.4% 증가한 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소재·장비 투자와 소비재·금융 분야 등의 투자가 증가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기계·장비, 전기·전자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합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작년 대비 155.0% 증가한 72억 1000만 달러(이하 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및 전문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모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작년 대비 25.3% 증가한 83억7000만 달러였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는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공장 증설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28억3000만 달러(62.7% 증가)를 달성했다.

또한 M&A형 투자는 대형 인수합병과 지분투자 증가로 작년보다 71.2% 많은 29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중 경제협력 확대, 수출증가세 등이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K-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 덕계이호텔에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K-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했다.

이번 스마트팜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주요 공무원들이 모이는 기회를 활용해서 스마트팜 분야 협력 사업 확대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개최하게 됐다.

포럼에서는 필리핀 농업부 엠마누엘 피놀 장관의 '아시아 지역 농가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망과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 스마트팜 정책 및 한국 스마트팜 기술 및 해외진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기업 간 1:1 상담회를 통해 신규 국제 협력 사업과 국내 농기업·농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종=최신웅 기자

### 고용노동부

#### 4차혁명 선도인력양성사업 12개 기관·20개 과정 선정

고용노동부는 4일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12개 훈련기관의 20개 훈련과정을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신기술·고속성장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월 서울대, 고려대 등 14개 훈련기관을 1차로 선정해 600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서울대, 한양대, 수원대, 멀티캠퍼스 등이며 빅데이터 등 6개 분야, 20개 훈련과정(501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참여 신청 후 선발절차를 거쳐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종=최신웅 기자

### 문화체육부

#### 책 구입비 등 추가소득공제

이달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연남뉴스

#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시장창출 지원 나선다

### 산업-복지부, 바이오헬스 회의

#### 의료기기·R&D 통합, 육성키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4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과 의료기기 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융복합 의료기기란 기존 의료기기에

인공지능(AI)기술, 로봇기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의료기기로 AI 진단기기, 수술로봇, 인공장기, 모바일헬스기기 등이 포함된다.

이날 산업부는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 혁신 ▲병원 수요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및 시장창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실증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융합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임상시험 지원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지원

▲국산 유망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국산의료기기 해외 수출 지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및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향후 3년간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초음파영상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융복합 의료기기 연구개발 일자리도 향후 5년간 약 2000여 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 장관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

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인허가 등 시장진출 관련 이슈를 먼저 검토·해결한 후 개발을 시작하는 '선 이슈검토·해결 - 후 개발착수' 방식으로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의료기기 R&D를 범부처 R&D로 통합해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 길찾기 등 공간정보 사업에 3천억 투입

### 국토부, 총 771개 사업 확정

올해 공간정보 사업 육성에 3031억원이 투입된다.

공간정보는 길 찾기, 교통 이용, 가상 현실 게임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융복합 기술의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가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수립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의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차별 이행 계획이다.

올해는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보다 10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사업수는

49건 늘었다.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도를 도엽(전체 지도를 구성하는 한 부분) 단위로 2년마다 갱신·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객체(도로, 건물 등) 중심의 수시 갱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이 이뤄진다.

변동 사항을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 등에 일괄적으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율도 높여 나간다.

또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하고 수신된 위성정보를 관리하는 위성정보 활용센터 건축물 설계도 올해 안에 끝낸다.

영세업자, 새싹기업 등이 투자위험 없이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센터도 올 하반기 착공한다.

세종=최신웅 기자 csh9101@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함께 만들어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주간 행사에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시민들이 안전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적은 안전모 화분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근로자, 사업주, 국민 모두의 안전문화 형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연남뉴스